

# 18世紀 國語의 多義語 研究

金 泰 珉\*

## 目 次

- I. 序 論
- II. 多義語의 生成要因
  - 1. 意味間 類似認識
  - 2. 意味間 隣接認識
- III. 結 論

## I. 序 論

多義語는 한 단어에 여러 意味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意味들 사이에는 有緣性(motivation)이 있어야 한다. 意味들 사이에 有緣性이 없으면 同音異義語가 된다. 그런데 多義語가 왜 발생하는가? 이러한 원인은 언어의 經濟性으로 흔히 설명하는데, 이는 수없이 생겨나는 사물에 대하여 힘들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도, 기존의 단어에 해당되는 새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떤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문물과 인간의 지식이 계속 확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간 後期中世國語와 17世紀 國語에 나타나는 多義語를 고찰한 바

---

\* 국어교육과 교수

있다.” 이번에 이 논문에서는 18世紀 國語에서 발견되는 多義語를 고찰하는 바, 이 시기에는 어떠한 多義語가 있고 그 多義語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렇게 共時的으로 어휘를 고찰하여 通時的으로 어휘의 변천상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용된 문헌과 그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敬釋	敬信錄診釋	1796
臘藥	診解臘藥症治方	英祖
明義	明義錄診解	1777
蒙老	蒙語老乞大	1741
蒙補	蒙語類解補	1790
蒙解	蒙語類解	1768
無冤	增修無冤錄診解	1792
朴新	朴通事新釋診解	1765
方言	方言類釋	1778
百行	御製百行源	1765
普勸	念佛普勸文	1776
松江	松江歌辭	1747
十九	十九史略診解	1772
女四	女四書診解	1736
譯補	譯語類解補	1775
伍倫	伍倫全備診解	1721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1) 김태곤(1989),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고유어를 중심으로-”, 中央大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김태곤(1992), “17세기 국어의 多義語 연구(1)”, 제주대 논문집 35집.

김태곤(1993), “17세기 국어의 多義語 연구(2)”, 勤齋 梁淳秘박사 화갑기념어 문학논총, 학문사.

繪音	繪音諺解	18세기
恩重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龍珠寺本)	1796
隣語	隣語大方	正祖朝
日東	日東壯遊歌	1764
正俗	正俗諺解(一義文庫本)	18世紀末
種德	種德新編諺解	1758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闡義	闡義昭鑑諺解	1755
捷蒙	捷解蒙語	1790
訓書	御製訓書諺解	1756

## II. 多義語의 生成要因

### 1. 意味間 類似認識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 또는 사회적 현상을 서로 비교하여 의미들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語形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意味(S1)와 比喻되는 派生意味(S2) 사이에 類似觀念이 인식되면 그 語形은 둘 이상의 의미를 보유하게 된다.

#### 1) 適用의 轉移

어떤 단어는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原義(中心意味)에서 그 문맥에서만 짐작될 수 있는 聯想意味를 생각해 내는데, 이들 의미 사이에는 의미적인 有縁性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聯想된 派生意味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영속적인 의미를 획득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適用의 轉移(shifts in application)<sup>2)</sup>라고 한다.

2) S. Ullmann著, 남성우譯(1981), 意味論의 原理, 탑출판사, p. 125.

(1) ㄹ 놀다

① 잘다

여물을 다가 빠홀기롤 ㄹ 놀게 ㅎ고(把草金剗得細些)(朴新1:25)

② 약하다

ㄹ는 북롬(微風)(方言1:4)

이 'ㄹ 놀다'의 原義는 '굵지 않다'인데 위의 예①과 같이 '잘다'의 뜻으로도 쓰였고, 위의 예②와 같이 '약하다' 뜻으로도 18세기 국어에서 쓰였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가늘다'가 '약하다'(微)의 뜻으로는 쓰이고 있지 않다.

(2) 고개

① 목의 뒷등(後頸)

고개 수기다(總垂)(譯補41)

② 嶺

고개(嶺子)(方言1:10)

이는 신체어 '고개'에서 山이나 언덕의 '고개'(嶺)의 뜻으로 전이되어 쓰이는데, 두 사물 사이의 '위치의 類似'에서 쉽게 聯想되어 의미의 분화가 일어났다. 현대국어에서는 辭典에 따라 이 단어를 多義語나 同音語(표제어를 따로 함)로 처리하고 있다.

(3) 집다

① 補綻

집다(補綻)(蒙解 上43)

터진 되 집다(補綻)(方言2:25)

② 補土

小百姓이 보야흐로 ㄹ 山의 이서 地皮롤 집더니(小百姓方纔在山上補地皮)(伍倫5:27)

단어 '깁다'의 原義는 '補綻'(해진 데에 조각을 대고 꿰뭉.)의 뜻인데 의미의 類似에서 전이되어 '갈라지거나 패인 地表를 補土하다.'의 의미로도 쓰였다. 이 단어가 17세기 국어에서는 추상화된 의미인 '補佐하다'의 뜻으로도 쓰였던 말인데, 18세기 국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는 未見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깁다'가 위의 예②처럼 '補土'의 의미로는 쓰이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 단어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4) 놓다

① 가축을 어디에 있게 하다.

두 사람이 물 가져가 저기 노호라(蒙老4:1)

풀에 노타(放草)(方言4:15)

② 加設하다

다리 놋타(搭橋)(蒙解 上31)

구들 놋타(打炕)(方言2:21)

③ 석방하다

엇지키여 가도고 노치 아니하노(因何監着不放呢)(朴新3:20)

놋타(脫放)(方言3:15)

④ (포탄이나 총알을) 쏘아 나가게 하다.

블 놋타(放砲)(方言2:11)

도총 놋타(放鳥)(方言2:11)

⑤ (계속되던 조심음) 풀어 없애다.

모음을 노치 말게 하라(輪音 論慶尚道觀察使 금진음 슈령6)

大伯은 감애 모음을 노호쇼셔(大伯去心放)(伍倫4:33)

이의 일음으로 넘너를 노치 말지어다(明義 進明義錄9)

⑥ 罷하다, 끝나다, 그만 두다.

혹당의셔 노하든(放學)(重老 上2)

단어 '놓다'의 原義는 '일정한 자리에 두다.'의 뜻인데 18세기 국어에서 위

의 예①-⑥과 같은 의미로 여러 대상에 적용하여 쓰였다. 새로운 문물이 발견됨에 따라 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단어 '놓다'가 잘 쓰이는데, 이에 따라 이 말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 중 ④의 '도층 늦타'가 그러한 예이다.

(5) 되다

① 稠

되다(稠)(蒙解 上45)

② 독하다, 심하다

술맛 되다(酒鹹)(蒙解 上47)

단어 '되다'의 原義는 위의 예①과 같이 '밥이나 죽 같은 것이 물기가 적어서 딱딱한 것.'을 이르는데 適用的 轉移로 위의 예②와 같이 '독하다, 심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였다. 또 "되다"는 접두사 '된-'이 되어 '된죽(稠粥)(方言 2: 29), 된서리(嚴霜)(方言1: 5), 된소주(乾燒酒)(譯補30)'와 같은 어휘를 형성하여 그 당시에 쓰였고,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도 활발하다.

(6) 머리

① 頭部

머리를 드리이러 여어보미(明養 卷首上34)

내 머리롤 두드려(我叩頭)(種德 上32)

② 물건의 끝 부분

헛머리와 입시울과(舌頭脣)(無冤3: 60)

빈머리의 줄을 밧야(日東2: 5)

③ 처음, 시작

저우롬 돌로써 헛머리를 삼으시다(以寅月爲歲首)(十九1: 21)

머리브터 쫓궤디 니르히 혼 귀팅경호는 말이(蘭義1: 17)

身體에서 머리(頭部)의 위치가 끝 부분에 위치하는데 착안하여 위의 예②와

같이 물건이나 자연물의 끝 부분을 가리킬 때도 '머리'란 어휘를 사용했다. 그리고 위의 예③과 같이 '처음, 시작' 등의 의미로도 쓰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位置의 類似에서 쉽게 轉移된 것이다.

(7) 문허지다

① 허물어져 내려앉다.

문허지다(壞了)(蒙解 下44)

터질이 문허지고(宮室毀壞)(十九1:44)

ㄷ리 문허지다(橋塌了)(方言2:18)

② 傷하다

갓과 슬히 점점 문허디고(상ᄃᆞ단 말이라)(皮肉漸壞)(無寬1:46)

이 말은 17세기 국어까지는 語形이 '물허디다'로 쓰였던 것인데<sup>3)</sup> 18세기 국어에서는 음운변화를 일으켜 '문허지다'로 쓰였다.

(8) 보람

① 표시

스승이 그 우히 보람 두고(蒙老1:5)

두 쏙히 보람흔 저시 다 잇느니라(蒙老8:9)

② 영수증, 차용증

네게 청ᄃᆞ느니 나를 ᄃᆞ차 혼 장 빗내논 보람을 쓰라(煩你代我寫一紙借票)(朴新1:58)

중세국어 이래 단어 '보람'이 '表示'의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 위의 예②와 같이 '借用證'의 뜻으로도 쓰였다.

(9) 부리

① 입(口)

더 瘡 부리에 머므지 말고 ㅼᆞ고 (在那瘡口上不住的 搔抹)(朴新1:16)

3) 김태곤(1992), 前揭論文, p. 52.

곳 큰말 나르기를 베히는 뒷은 부리로 꺾여(便說大話砍辣嘴)(伍倫3:11)

네 이리 큰 브리로 베틴드시 꺾니(你這等破大嘴)(伍倫7:16)

② (항아리, 병 등의) 입

한 긴독 조븐 부리 안히(一箇長甕兒窄窄口裏)(朴新1:40)

③ 어떤 사물의 뽀족하게 된 부분

스미 부리(袖口)(方言2:24)

이 말은 중세국어에서는 語形이 '부우리, 부우리, 부리' 등으로 쓰였으나, 17세기 국어부터는 지금과 같이 '부리'로만 음절이 단축되어 쓰였다. '부리'의 原義는 '새나 짐승의 주둥이'를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이 위의 예②③과 같이 形態가 類似한 데서 轉移하여 다른 물건에도 쓰인 것이다.

(10) 부치다

① 接着, 貼, 붙게 하다.

붓티다(貼上)(蒙解 下45)

모로미 膏藥을 부치디 말라(不須貼膏藥)(朴新1:15)

더 집의 殃榜을 그 門 우회 부쳤느니(他家殃榜貼在那門上)(朴新3:43)

②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나느 흥덩 붓칠 새름이라(蒙老5:14)

곳 뵈땅이 빠흠 부치고(便鬪促織)(朴新1:21)

효주술손씨 말을 브티느니(寄語孝子順孫)(普勸41)(禪雲寺本)

③ 불을 붙게 하다.

불 부치다(點火)(方言4:10)

④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物件 부쳐 보내기(隣語5:8)

닷 필 靑布를 부쳐와 너를 주더라(五疋靑布來與你的)(朴新1:50)

흔 봉 글을 배 주어든 부터 보내미 엇더호노(寫一封書稍去何如)(朴新3:14)

안 너홀 비단 네 필을 부터(裡袖四疋)(朴新3:15)



⑤ 몸이나 식사 따위를 依託하다.

낯선 사람을 간대로 부치게 말라(蒙老3:13)

몸을 허하여 성패니둔을 하늘의 부쳐시니(明義 卷首 上22)

이 단어의 형성은 '불다'에서 파생된 '브티다'가 중세국어에 쓰였고, 여기서 18세기 국어에서는 圓脣母音化와 口蓋音化의 형태인 '부치다'로 쓰였다. 이처럼 이 당시에 '부치다(부티다)'로 표기하여 발음나는 대로 하였지만, 현행 한글맞춤법 통일안(제57항)에서는 의미에 따라 단어형태를 '부치다'와 '붙이다'로 구별하여 적도록 하고 있다. 즉,

'부치다'는

- ① 힘이 미치지 못하다.
- ②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 ③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 ④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 ⑤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누름적, 저나 따위를 익혀 만들다.
- ⑥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 ⑦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 ⑧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

'붙이다'는

- ① 붙게 하다.
- ② 서로 맞닿게 하다.
- ③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 ④ 암컷과 수컷을 交合시키다.
- ⑤ 불이 옮겨서 타게 하다.
- ⑥ 노름이나 싸움 따위를 어울리게 만들다.
- ⑦ 달려 붙게 하다.
- ⑧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익어지게 하다.
- ⑨ 이름을 가지게 하다.

⑩ 뺨이나 볼기를 손으로 때리다.

(11) 빌다

① 빌리다(借)

네 집을 비러(要借你房子)(重老 上43)

갓가온 촌장의 잇는 호미를 다 빌니라(近村莊盡借所有之鋤)(種德 下58)

斫刀 하나를 비러 오라(蒙老3: 12)

오늘 저르러시니 네게 잘 솟을 비노라(蒙老3: 12)

② 빌다(乞)

누미 밥을 비디 마라(松江 下3)

그 아들이 길희셔 빌거늘(其子丐於塗)(種德 下27)

③ 禱

두루 디친의게 비러(徧懇至親)(種德 上21)

‘빌다’는 18세기 국어에서 위의 예들과 같이 ‘借’와 ‘乞’과 ‘禱’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현재는 ‘借’의 뜻은 語形을 ‘빌리다’로 하여 ‘빌다’와 다르게 쓰도록 하고 있다.”

(12) 어리다

① 어리석다(愚)

어린 계집의(愚婦)(女四2: 21)

엇디 이 어리디 아니호리오(豈不是痴保)(伍倫1: 21)

진실로 이 어린 사름이라(眞箇是癡人)(重老 下40)

② 나이가 적다.(幼)

이 정히 어린 아히를 보호다 흠이오(此正保嬰兒者也)(百行13)

어려서부터 어리고 게어름을 싸하(積小癡備)(女四2: 5)

중세국어에서 단어 ‘어리다’가 ‘愚’의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 18세기 국어에

4) 표준어 사정원칙 제6항.

서도 위의 예①과 같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 ②를 보면 알 수 있듯이 語形 '어리다'가 '幼'의 뜻으로도 쓰였는데, 어린 아이는 知的인 발달이 없으니까 의미 '愚'와 통하는 語形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5)</sup>

(13) 잡다

① 붙잡다(拿)

이 돌이 엇지 이리 잡기 어려오니(蒙老3: 11)  
 곳 올라가 새를 잡노라(上去拿雀兒)(朴新2: 46)

② 定하다

몬져 가 집 잡으니(先去躡店的)(重老 上61)

(14) 치다

① (짐승을) 기르다.

누에 치다(養蠶)(方言3: 22)

② 奉養하다

힘써 그 식엄이를 五十年을 치고(力養其姑五十年)(女四4: 19)

③ 養育하다, 먹여 살리다.

겨집과 주식을 처(育妻子)(正俗36)(一藝文庫本)  
 가져가 제 婦와 孩兒를 치니(拿去養活他婦孩兒)(重老 下51)  
 더 百姓 치기를(養那百姓)(伍倫4: 30)

원래 단어 '치다'는 '家畜을 기르다.'의 뜻인데, 대상을 사람에게도 적용시켜 위의 예②③과 같이 '奉養하다, 養育하다'의 뜻으로도 18세기 국어에서 쓰였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대상을 짐승에게만 한정시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단어 '치다'는 評價上 의미가 格下된 말이다.

5) 이윤환, 이용주(1975), 國語意味論, 玄文社, p.198.

(15) 풀다

① 감기거나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다.

마리 푸다(散頭髮)(蒙解 上41)

② 짐을 떼어내다.

짐 프러 나를 주오(松江 下4)

③ 콧물이 떨어져 나가게 하다.

코 푸다(擤鼻涕)(方言1: 21)

④ 석방하다

이들엿 말을 오직 원호옵느니 푸러 주옵쇼셔(此等之言唯願釋之)(普勸6)

단어 '풀다'의 原義는 위의 예①과 같이 '감기거나 얽힌 것을 풀어지게 하는 것.'인데 適用的 轉移로 위의 예②③과 같이 짐이나 콧물을 떼어내는 것과 위의 예④와 같이 가둬 놓았던 사람을 내보내 주는 의미로도 쓰였다.

(16) 허리

① 동물의 허리, 腰

애 더 身長이 六尺이오 허리 너르기 세 아롬이나 호고(咳那身長六尺腰闊三圍)(朴新3: 34)

허리(腰)(方言1: 17)

② 물건의 가운데

되스 허리(山腰)(方言1: 17)

보십 허리에 세운 기둥(犁柱)(方言3: 24)

이것은 동물의 허리가 몸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데서 물건이나 산, 지형 등의 중간 부분을 지칭할 때도 '허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意味間 類似로 轉移된 것인데 位置의 類似이다.

2) 抽象化

具體的 사물, 사실의 印象을 표시하는 말이 抽象的 사항, 개념, 정신을 표

시하는 의미로 전이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추상화 원인은 思考領域의 확대와 어휘사용 빈도의 증가에서 유래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던 語義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추상화는 구체감과 추상감각 사이의 類似에 의한 轉移로 볼 수 있다.

(1) 그릇

① 皿, 器

사발 그릇을 收拾하고(蒙老7:14)

특별히 새 그릇을 가져(特取新器)(無寬3:93)

그릇(器)(蒙解 下9)

② 度量

홍국영이 저상의 그르시 아니니(明義1:51)

지절이 이서 명상 방덕하니 실로 공보의 그르시라(有志節明爽方正實公輔器)(種德 下23)

‘그릇’은 원래 ‘皿’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의미의 抽象化로 ‘度量’의 뜻으로 쓰였다. 지금도 ‘그는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일을 처리하여 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2) 길

① 路

길 도: 途      길 로: 路(訓蒙 上6)

② 方法

그런 긴치 아닌 일까지 枚擧하려 하다가는 견딜 꼴이 업소의(麟語1:13)

斗護홀 길이 업소오니 無狀이 너기지 마옵소(麟語3:22)

‘길’이 具體語 ‘路’의 뜻에서 抽象의 의미 ‘방법, 수단’의 뜻으로 쓰였다. 이것 외에 현대국어에서는 ‘길’이 더 많은 추상화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①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 ②참됨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길이다. ③그는 그 길에서 제일인자이다.

(3) 닉다

① 煮

복가 반만 닉거든(蒙老2:3)

② 익숙하다

너도 길 든너 닉은 사롭이니(蒙老1:23)

이는 具體語 '煮'의 뜻에서 抽象化하여 '慣'의 뜻으로도 쓰인 경우이다.

(4) 님다

① 着服

태상왕 님으시는 옷시라(明義 卷首下52)

② (영향을) 받다

힘 님은 바논(明義 進明義錄劄子3)

'님다'는 원래 '着服하다'의 뜻인데 위의 예②와 같이 '(육이나 손해, 도움 따위를) 당하거나 받거나 하다.'의 뜻으로도 의미가 추상화하여 쓰였다. 이것 또한 의미의 類似性으로 쉽게 전이되어 쓰인 경우이다.

(5) 마디

① 뼈나 나무의 마디

스물 네 마디 뼈에서(二十四髓骨)(無冤3:98)

② 節制

玉으로써 움주김을 마디하며(玉以節動)(女四3:11)

③ 句節, 小節

비파과 거문고 톱 굿다 비긴 마디에 니르셔(如鼓瑟琴)(正俗9)(一養文庫本)  
곳 어버이 섬기며 님금 섬기웁는 혼 큰 마디니(卽事親事君之一大節也)(百行17)

'마디'는 위의 예①과 같이 '뼈나 나무의 마디'가 具體語로 原義인데 의미의

抽象化로 위의 예②③과 같이 ‘節制’나 ‘句節, 小節’의 뜻으로도 잘 쓰였다.

(6) 무르다

① 건조하다

이슬 무르다(露乾) (方言1: 5)

답답고 목 무르고(煩渴) (臘藥23)

입이 무르고(口乾) (無冤3: 62)

② 급하다

성 무르다(性躁) (蒙解 上17)

성 무르다(性急) (方言1: 24)

‘무르다’는 원래 위의 예①과 같이 ‘乾燥하다’의 의미인데 의미의 抽象化로 ‘급하다’의 뜻으로도 위의 예②와 같이 쓰였다.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국어 이래 계속되는 것인데 18세기 국어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그러한 뜻으로는 쓰이고 있지 않다.

(7) 밋다

① 엮어서 매듭지게 하다 (編)

그물 밋다(編網) (方言4: 9)

② (관계, 인연) 짓다.

닌한의게 사괴물 미즈 그 천거홈을 빙자하야(明義1: 55)

死生에 도흔 弟兄을 미즈미 무던하다(結爲生死好弟兄羅) (朴新1: 27)

원래 ‘밋다’는 그물 등을 만들 때, 엮어서 매듭이 지게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의미의 抽象化로 인간관계나 인연 등을 갖게 될 때도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8) 맛

① 味覺

맛(味) (蒙解 上48)

먹으나 마시나 맛이 업서(捷蒙2:7)

② 흥미

또 맛이심을 셔드롤러라(也覺得有趣)(朴新1:21)

원래 단어 '맛'은 물건을 혀에 댈 적에 느끼는 감각을 나타내는데, 의미의 抽象化로 위의 예②와 같이 '흥미'의 뜻으로도 쓰였다. 현대국어에서도 '살림 맛, 등산 맛, 여행 맛' 등과 같이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9) 불회

① 木根

내 다만 창포 불회 술을(我只知道蒲根解酒)(朴新3:4)

② 根本, 根據

엇지 불회업슨 말이 귀예 들니리오(明義 卷首下 존현각)

무슨 묵음으로 불회업슨 말을 지어(明義 卷首下 輪音8)

語形 '불회'는 原義가 '나무나 풀의 뿌리'인데 의미의 類似性으로 抽象化된 의미인 '根本, 根據' 등의 뜻으로 위의 예②와 같이 쓰였다.

(10) 안

① 裏面

안(裏頭)(方言1:11)

② 마음(心)

후겸이 닌한의 당의게 안흐로 실노앙앙호야 호나(明義 卷首下63)

(11) 어둡다

① 暗黑

하늘 어둡다(天暗昏)(方言1:2)

② 사물에 밝지 못하다.

이 性이 어둡디 아니코져 홀던댄(訓書 性道敎圖解3)

신이 이미 흑문이 어둡고(蘭義1:32)



단어 '어둡다'는 원래 '暗黑'을 가리키는데 의미의 抽象化로 위의 예②처럼 '사물에 밝지 못하다.'의 뜻으로도 쓰였다. 한편 적용의 轉移로 '시력이 약하다.'의 뜻으로도 이 시대에 쓰였다.<sup>6)</sup>

(12) 터

① 場

檢屍터회(檢屍場)(無寬1:17)

다만 그 죽엄 슬은 터홀(但得其焚屍之地)(無寬3:94)

大關터회(松江 上1)

② 일의 기반, 토대

우흐로는 미들 터히 업논지라(明義2:43)

저회 무리 스설의 터히 될가 두려(明義 卷首上33)

원망홀 터홀 하니(明義 卷首下 존현각57)

儉은 富의 터히니(儉者富之基)(女四4:64)

빅흔 일을 말미암아 터홀 삼을이라(由學以基之也)(正俗12)(一養文庫本)

단어 '터'는 原義가 '場所'를 가리키는 말임을 위의 예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의 抽象化로 '어떠한 일의 기반, 토대'의 뜻으로 18세기 국어에서 폭넓게 쓰였음을 위의 예②를 보면 알 수 있다.

(13) 풀다

① 얽히거나 감긴 것이 풀어지게 하다.

마리 푸다(散頭髮)(蒙解 上41)

② 恨이나 근심을 없애다.

愁悶함을 풀미 엇더호노(解愁悶如何)(朴新2:3)

흔 사름의 혼롤 풀며(敬釋81)

③ 해석하다, 해설하다

6) 눈 어둡다(眼昏)(方言1:19)

너희를 위하여 분별하여 푸러 니르리라(爲汝分別解說)(恩重35)(龍珠寺本)

위의 예를 보면 ①에서 보인 具體的인 의미가 ②③과 같은 抽象的인 의미로 당시에도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4) 헐다

① 몽그러뜨리다

허다(毀壞)(蒙補38)

蟲鼠 | 너흐러 허룬 흔적(蟲鼠齧破痕跡)(無寬3:90)

드리 허다(拆橋)(方言2:18)

② 어떤 제도를 없애다.

장춧 세 도를 허러 버 나라를 강케 하시니(將墮三都以強公室)(十九1:88)

③ 인격 등을 毀損시키다.

친흔 정을 허러 욱하며(毀辱親情)(恩重27)(龍珠寺本)

‘헐다’의 原義는 위의 예①과 같이 ‘물건, 건물, 물체 등을 무너뜨리다.’인데 의미의 추상화로 위의 예②③과 같이 제도 등을 없애거나 인격 등을 훼손시키다는 의미로도 18세기 국어에서 쓰였다.

### 3) 共感覺的 轉移

감각에는 視覺, 聽覺, 味覺, 觸覺, 嗅覺의 다섯 감각이 있는데, 이들의 의미가 관념적, 추상적 개념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국어는 感覺語가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18세기 문헌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학류의 문헌에서는 많이 쓰였으리라고 본다.

○ 밍다

① 辣

밍다(辣)(蒙解 上48)

밍은 것(辣)(朴新1:54)

② 독하다

미운 술(厭酒) (方言3: 1)

③ 사납다

큰 말 니르기를 배히는 미운 부리로 혀여(說大話欣辣嘴) (伍倫3: 11)

共感覺的 轉移란 한 感覺에서 다른 感覺으로 轉移하여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것은 감각어가 어떤 대상에 流用同化되어 의미가 변한 것이다. ‘밋다’는 미각어인데 위의 예②와 같이 술이 독하다는 의미로 쓰이거나, 위의 예③과 같이 ‘부리’에도 쓰이어 ‘사납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 2. 意味間 隣接認識

이것은 하나의 사물(S1)과 다른 사물(S2)이 空間的으로 인접하여 있거나, 時間的으로 同時 또는 前後 관계에 있거나, 또는 因果의 관계에 있을 때, S1은 S2와 隣接知覺에 의하여 聯合하게 된다. 이는 종래 전통적 분류인 修辭의 분류의 提喩와 換喩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데, Ullmann은 이들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意味間 隣接이란 항에서 換喩로 묶어서 다루었다.<sup>7)</sup>

(1) 머리

① 頭部

그 사람의 머리롤 한번 쳐(蒙老2: 12)

마리에 쓰는 거슨(蒙老7: 20)

② 頭髮

우리 머리 깎는 이(我剃頭的) (朴新1: 43)

18세기 국어에서도 ‘頭部’란 의미를 나타내는 語形은 위의 예①과 같이 ‘마리’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이 위의 예②와 같이 ‘頭髮’의 뜻으로도 쓰였다. 이것은 ‘頭髮’이 ‘頭部’에 인접하여 있는 데서 쉽게 轉移되어 쓰인 것으로 공간적 인접에 해당한다. 현대국어에서도 단어 ‘머리’가 ‘頭髮’의 뜻으로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현대국어 ‘머리’(頭髮)란 말은 ‘머리카락’이라는 단어에

7) S. Ullmann著, 남성우譯(1981), 前掲書, pp. 249-250.

서 名稱의 인접 중 被限定語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로도 생각할 수 있다. 18세기 국어에서도 '마리털(朴新1: 43)'이란 단어가 발견되는데, 被限定語 '털'이 생략되어 '마리(頭髮)가 쓰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집

### ① 家屋

궁중 집큰 집의 남기니(明義 卷首下53)

### ② 家庭, 집안

집이 가음열면(家富)(朴新2: 46)

집이 가난하미 어던 안해톨 생각하고(家貧思良妻)(十九2: 66)

형이 집 지물을 닷토와(哥哥爭家財)(伍倫5: 10)

원래 단어 '집'은 '家屋'의 의미인데 意味間 隣接認識으로 '家庭, 집안'의 의미도 語形을 그냥 '집'이라고 불렀다. 이는 空間的 隣接으로 容器와 內容 사이의 인접에서 파생된 것이다.

## Ⅲ. 結 論

지금까지 18세기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국어 多義語가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들의 생성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의 생성요인은 意味와 意味 사이의 類似認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로 우리 인간은 知的 능력이 발달하여 意味 사이의 類似點을 쉽게 찾아내며 聯想하는 재주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도 多義語를 이용하여 언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頭部'의 뜻을 가진 '머리'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물건의 끝 부분'이나 '일이나 말(言)의 시작(처음)'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로 의사소통을 손쉽게 한다.

그리고, 또하나 多義語 생성요인은 意味와 意味 사이의 隣接認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頭部'란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 '마리'가 空間的 隣接으로 '頭髮'이란 의미를 가리키기도 했다.